

일 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차이

정경아¹, 조지현^{2*}

¹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²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Kyoung-A Chung¹, Ji-Hyun Cho^{2*}

¹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hin University

²Dep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및 진로 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카이제곱 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과선택 시기에 따라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과 선택 시기가 빠른 경우(고등학교 재학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대입원서 접수 전, 대입원서 접수기간)보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진학 후 효율적인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작업치료학과와 특징이 융합된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Key Words** : 학과선택시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작업치료학과, 융합진로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Frequencies,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OVA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2.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As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was earlier(in high school),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other times(before application period or application period). Thus, in order to effective life guidance and career guidance for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fter admission, the carrer programs that converg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re needed.

• **Key Words** :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Career ident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nvergent carrer program

*교신저자 : 조지현(jhcho@dsh.ac.k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의 2015년 6월 실업자 자료에 의하면 105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1,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도 남자가 7만 7,000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만 4,000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하였다[1].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대학 진학시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기 보다는 심각해지는 취업난으로 인하여 취업률이 높은 전문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문 사회계열이나 공학계열보다 보건계열의 지원률이 높아지고 있다[2,3].

보건 계열 학과들은 전공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면허를 취득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4].

작업치료학과는 작업적 수행이 손상되었거나 손상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로 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수준을 키워야 한다[5].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학과 학생들 보다 다양한 전공과목으로 인한, 교육과정에 여유로움 없는 과중한 학습과 임상실습,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해부학, 생리학 등의 기초 과목을 배워야 하고, 국가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6,7]. 이러한 학과의 특성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켜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한 성적 불량, 대학의 면학분위기 저해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신뢰하지 못하고 대학 생활적응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8]. 대학생들의 적응은 전공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관계, 학과나 기관 등 다양한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적인 적응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미래와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입시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고 학과에 대한 탐색 없이 학과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 전공만족도는 낮아지고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9].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은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 개발 기회의 박탈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전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생은 진로 및 취업문제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며,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같은 진로과정 중에 욕구 좌절 및 갈등을 나타내는 진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 진로불안감은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대학 생활동안 삶의 질과 졸업 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충분한 탐색이 없는 즉흥적인 진로 결정은 직장인의 잦은 이직과 연결되며 직장을 구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10,11]. 반대로 선택한 학과가 적성에 맞거나 학과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면 본인 선택에 대한 높은 신뢰로 인한 높은 자존감과 이로 인해 잠재된 가능성의 개발 기회를 갖게 되어 스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과선택은 개인의 대학 생활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미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생들은 성적이나 주변의 결정에 의하여 학생 스스로 학과에 대하여 준비도 하기 전에 학과를 선택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탐색 기회도 갖기 전에 학과를 선택하므로 학생들은 학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거나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학과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과선택을 하는 시기인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로 지도나 진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자기 개발에 맞는 대학진학결정, 학과탐색, 구체적인 대학 탐색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과를 결정하게 되면, 대학 진학 후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 과정 및 진로 계획 등과 연관되어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이 상승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12,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재학 중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을 파악하여 작업치료학과 입시 홍보와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상담의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

하였다.

- 1) 직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특성, 학과선택 시기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을 알아본다.
- 2) 직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D대학교 직업치료학과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는 194명이었는데, 불성실한 응답자 9명을 제외하고 분석에는 18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1일 부터 17일 까지 이다.

2.2 연구도구

2.2.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학생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로 대학생들에게 학과가 지니는 의미와 학과에 대한 만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에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7,14].

김과 하의 연구[15]에서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래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만족 척도를 34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16]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에서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 후 요인별 5점 만점의 평점을 구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6이었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일반만족 .880, 인식만족 .823, 교과만족 .721, 관계만족 .714으로 나타났다.

2.2.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과 대학 환경 사이 즉,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8], 자신이 가진 욕구에 알맞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환경에 스스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다각적 현상이다[9]. 이는 학생들이 학업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면,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개인-정서면, 대학환경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뜻한다 [17,18].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7]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척도를 윤[19]이 번안하고, 김[18]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윤[19]의 연구에서는 67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김[18]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20문항, 개인-정서적응 16문항,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의 4개의 하위척도로 나뉘는데,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은 사회적응과 8개 문항이, 학업적응과는 1개 문항이 각각 중복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나 하숙, 자취생에게만 해당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64문항으로 계산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뜻한다. Baker와 Siryk[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고, 윤[18]의 연구에서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78에서 .83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김[19]연구에서는 .90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941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학업적응 .879, 사회적응 .866, 개인-정서적응 .821, 대학환경적응 .872이었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감정으로 개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징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0].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서는 Coopersmith[21]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2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강[22]의 연구에서는 예-아니요 의 이분형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 마찬가지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자기존중(5문항), 타인과의 관계(7문항), 지도력과 인기(6문항), 자기주장(7문항)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문항 중 1문항과 자기주장에 해당하는 문항 중 3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낮아 제외

하고 2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oopersmith[21]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8$ 이었으며, 강[22]의 연구에서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r=0.86$ 이었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측정한 김[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고, 하위요인별로는 .69에서 .73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871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자기존중 .674, 타인과의 관계 .720, 지도력과 인기 .665, 자기주장 .660이었다.

2.2.4 진로정체감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 중 직업영역에서 개인의 정체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진로 목표(goal), 흥미(interest), 성격(personality), 재능(talents) 등에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picture)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24]. 본 연구에서는 Holland, Daiger, Power[25]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 18문항을 김[26]이 번안하고, 권과 김[27]이 간호대학생에 맞게 14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연구자가 작업치료학과 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26]의 척도는 18개의 문항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 중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 이중 “아니다”에 응답한 반응의 총 수로 계산하였으나, 권과 김[27]의 척도는 4점 척도로 수정하여 합산한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을 하게 한 후, 5점 만점의 평점을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 및 요인 적재량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각각 목표(5문항), 흥미(3문항), 재능(3문항), 성격(1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김[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고, 권과 김[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6이었는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목표 .855, 흥미 .730, 재능 .637이었다.

2.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시 회전방법은 베리

맥스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선택시기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으로 비교하였고, 학과선택시기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만족도,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정도,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분산분석으로 비교한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heffe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산분석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F통계량 대신 Welch 통계량으로 비교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nett의 T3로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3.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14.6%, 여학생이 85.4%로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30.8%, 2학년이 34.1%, 3학년이 26.5%, 4학년이 8.6%였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절반 가까이(46.5%)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하였고, 대입원서 접수 전 31.4%, 대입원서 접수기간 19.5%였으며,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 진로를 변경하여 입학한 학생은 2.7%였다. 출신고교는 일반고의 이과 출신이 56.8%, 문과 출신이 36.8%였고, 전문계고 5.9%, 기타 0.5%였다. 작업치료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동기는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가 42.7%로 가장 많았고,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32.4%), 부모님 또는 주위의 권유로(16.2%) 등의 순이었다.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잘 알고 있었다 5.4%,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47.0%)이 몰랐던 사람(이름만 들어봤다 25.4%, 전혀 알지 못했다 19.5%)보다 더 많았으며, 현재계획 중인 졸업 후 진로는 71.4%가 병원 및 센터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17.3%로 나타났다.

3.1.2 응답자의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응답자의 전공만족도의 총점의 평균은 3.32 ± 0.52 점이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위요인은 학생-교수간 관계 만족도로 3.44 ± 0.67 점이었고, 일반만족도 3.35 ± 0.68 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7(14.6)
	Female	158(85.4)
Grade	Freshman	57(30.8)
	Sophomore	63(34.1)
	Junior	49(26.5)
	Senior	16(8.6)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In high schooler	86(46.5)
	Before application period	58(31.4)
	Application period	36(19.5)
	Change major or graduate	5(2.7)
Track of alma mater	Non-academic high school	11(5.9)
	Academic high school(Liberal arts)	68(36.8)
	Academic high school(Science courses)	105(56.8)
	The others	1(.5)
Motivation of application for the department of Occupation Therapy	Aptitude or Interest	60(32.4)
	Recommendation of related industries workers	1(.5)
	Employment possibilities	79(42.7)
	Academic standing	13(7.0)
	Parents or Advice from others	30(16.2)
	Having a dream	2(1.1)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Known well	10(5.4)
	Known a little	87(47.0)
	Known the name	47(25.4)
	Unknown	36(19.5)
	Opening	5(2.7)
Post-graduation career decision	Hospital or center job	132(71.4)
	Graduate school	9(4.9)
	Non-Major job	4(2.2)
	Non- decision	32(17.3)
	Civil service examination	5(2.7)
	Opening	3(1.6)
N		185(100.0)

인식만족도 3.30±0.58점, 교과만족도 3.17±0.69점의 순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경우에는 총점의 평균은 3.02±0.46점이었고, 적응 정도가 가장 높은 하위요인은 사회적응으로 3.25±0.50점이었고, 대학환경적응 3.22±0.61점, 학업적응 2.82±0.48점, 개인-정서적응 2.80±0.5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총점의 평균은 3.24±0.50점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자기존중 3.01±0.66점, 타인과의 관계 3.62±0.61점, 지도력과 인기 3.25±0.55점, 자기주장 2.98±0.68점이었다. 진로정체감 총점의 평균은 2.94±0.65점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 3.01±0.81점, 흥미 2.52±0.75점, 재능 3.13±0.74점, 성격 3.27±0.96점이었다 <Table 2>.

3.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선택시기의 차이

응답자의 성별, 학년, 출신고교에 따라 학과선택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이나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신고교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대학진학이 목적인 일반계고 학생의 경우에는 계열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45% 내외였고, 원서 접수 전이나 접수기간에 선택한 경우가 문과는 37.3%와 16.4%, 이과는 30.7%와 24.8%였지만, 취업이 우선되는 전문계고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과까지 선택(90.9%)하는 것으로 보인다<Table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Category	Min.	Max.	Mean ±SD
Total Major Satisfaction	2.00	5.00	3.32±0.52
General Satisfaction	1.33	5.00	3.35±0.68
Perception Satisfaction	1.83	5.00	3.30±0.58
Curriculum Satisfaction	1.33	5.00	3.17±0.69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2.00	5.00	3.44±0.67
Total College Adaptation	1.64	4.68	3.02±0.46
Academic Adaptation	1.71	4.67	2.82±0.48
Social Adaptation	1.47	4.71	3.25±0.50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1.50	4.50	2.80±0.53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1.33	4.87	3.22±0.61
Total Self-Esteem	1.62	4.95	3.24±0.50
Self Respect	1.00	5.00	3.01±0.66
Relationships with others	2.17	5.00	3.62±0.61
Leadership and Popularity	1.17	4.83	3.25±0.55
Self-Assertiveness	1.25	5.00	2.98±0.68
Total Career Identity	1.25	5.00	2.94±0.65
Goals	1.00	5.00	3.01±0.81
Interests	1.00	5.00	2.52±0.75
Talents	1.33	5.00	3.13±0.74
Personality	1.00	5.00	3.27±0.96

<Table 3> Level of Subjec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Variable	Categories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n(%)			$\chi^2(p)$
		In high schooler	Before application period	Application period	
Gender	Male	16(64.0)	7(28.0)	2(8.0)	3.850(.146)
	Female	70(45.2)	51(32.9)	34(21.9)	
Grade	Freshman	25(43.9)	20(35.1)	12(21.1)	6.641(.355)
	Sophomore	32(50.8)	16(25.4)	15(23.8)	
	Junior	21(47.7)	14(31.8)	9(20.5)	
	Senior	8(50.0)	8(50.0)	0(0.0)	
Track of alma mater	Non-academic high school	10(90.9)	1(9.1)	0(0.0)	10.715(.030)
	Academic high school (Liberal arts)	31(46.3)	25(37.3)	11(16.4)	
	Academic high school (Science courses)	45(44.6)	31(30.7)	25(24.8)	

3.2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차이

학과선택 시기 중 타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 졸업 후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 대입원서 접수 전, 대입원서 접수기간의 세 시기에 따라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3.2.1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정도의 차이

학과선택 시기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있

었는데, 대입원서 접수 전에 선택한 학생들보다 (2.93±.722) 고등학교 재학 중에 선택한 학생들 (3.26±.758)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1점) ~ 잘 알고 있었다(4점)으로 비교한 결과도 학과선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대입원서 접수기간 (1.94±0.89)에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 재학 중 (2.64±0.77)에 선택한 학생들의 지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Table 4> 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Previous knowledge of department according to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Variable	Categories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r m±s.d.)			F(p) Schéffe
		In high schooler ^a	Before application period ^b	Application period ^c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5 Scale)		3.26±.758	2.93±.722	3.17±.775	3.334(.038) b<a
the department of knowledge (4 Scale)		2.64±0.77	2.33±0.86	1.94±0.89	9.324(.000) c<a

<Table 5> Level of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r m±s.d.)			F(p) Schéffe
	In high schooler ^a	Before application period ^b	Application period ^c	
Total Major Satisfaction	3.44±0.54	3.19±0.51	3.20±0.42	5.183(.006) b<a
General Satisfaction	3.44±0.68	3.22±0.65	3.28±0.70	2.032(.134)
Perception Satisfaction	3.45±0.60	3.14±0.55	3.12±0.49	7.230(.001) c,b<a
Curriculum Satisfaction	3.33±0.71	3.04±0.61	3.04±0.66	4.258(.016) b<a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3.51±0.67	3.37±0.65	3.39±0.65	.856(.426)

<Table 6> Level of College Adaptation according to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r m±s.d.)			F(p) Schéffe
	In high school	Before application period	Application period	
Total College Adaptation	3.06±0.45	3.07±0.45	2.87±0.47	2.678(.072)
Academic Adaptation	2.87±0.44	2.85±0.46	2.67±0.56	2.422(.092)
Social Adaptation	3.29±0.49	3.32±0.48	3.10±0.55	2.319(.101)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2.82±0.55	2.90±0.55	2.64±0.45	2.564(.080)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28±0.63	3.22±0.55	3.07±0.65	1.498(.226)

3.2.2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차이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하위요인 중 인식만족도와 교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식만족도는 대입원서 접수기간(3.12±0.49)이나 접수 전(3.14±0.55)에 학과를 결정한 학생들보다 고등학교 재학 중(3.45±0.60)에 학과를 결정한 학생들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 교과만족도는 대입원서 접수 전(3.04±0.61)에 학과를 결정한 학생들보다 고등

학교 재학 중(3.33±0.71)에 학과를 결정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총점의 평균은 대입원서 접수 전(3.19±0.51)에 학과를 결정한 학생들보다 고등학교 재학 중(3.44±0.54)에 학과를 결정한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학과선택 시기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Table 7> Level of Self-Esteem according to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r $m \pm s.d.$)			$F(p)$ Schéffe
	In high school ^a	Before application period ^b	Application period ^c	
Total Self-Esteem	3.29±0.48	3.30±0.48	3.10±0.58	2.134(.121)
Self Respect	3.03±0.63	3.09±0.64	2.87±0.78	1.252(.289)
Relationships with others	3.63±0.62	3.66±0.57	3.56±0.69	.236(.790)
Leadership and Popularity	3.32±0.52	3.32±0.45	3.00±0.69	5.151(.007)
Self-Assertiveness	3.06±0.66	2.97±0.67	2.84±0.74	c<a,b 1.414(.246)

<Table 8> Level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r $m \pm s.d.$)			$F(p)$ Schéffe
	In high school ^a	Before application period ^b	Application period ^c	
Total Career Identity*	3.10±0.69	2.89±0.57	2.67±0.62	5.759(.004) c<a
Goals	3.19±0.84	2.96±0.74	2.70±0.78	4.960(.008) c<a
Interests	2.70±0.81	2.40±0.66	2.31±0.67	4.631(.011) c<a
Talents	3.30±0.77	3.09±0.68	2.82±0.72	5.543(.005) c<a
Personality	3.23±0.93	3.41±0.90	3.11±1.17	1.180(.31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Welch statistics and Dunnett's T3 was used as a post-hoc test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and Self-Esteem

r (p)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Self-Esteem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1			
College Adaptation	.614*** (.000)	1		
Self-Esteem	.360*** (.000)	.732*** (.000)	1	
Career Identity	.642*** (.000)	.727*** (.000)	.551*** (.000)	1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지도력과 인기 요인만 학과선택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입원서 접수기간(3.00±0.69)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고등학교 재학 중(3.32±0.52)이나 대입원서 접수 전(3.32±0.45)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7>.

4)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하위요인 중 성격을 제외하고 모든 요

인에서 학과선택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입원서 접수기간에 학과를 선택(2.67±0.62)한 학생보다 고등학교 재학 중(3.10±0.69)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8>.

5)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9>.

4. 고찰

국내 작업치료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부상 군인들의 치료 목적으로 소개되었으며, 1979년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재활의학기술학과에서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을 가르치는 정규과정이 설립 된 후 22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단독으로 배출하여 왔다. 1998년 작업치료학과로 분리되었고 여러 대학에서의 작업치료학과의 신설과 증원에 따라 작업치료학과는 양적인 면에서의 발전을 이루었다[28]. 하지만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직업체험 진로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전공으로 생각하거나 물리치료의 한분야로 인식하고 있어 작업치료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 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학과선택 시기가 전공만족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개인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에 대학 교육의 과정을 밝혀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대학생의 진로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현장의 진로 지도나 진학지도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12]. 작업치료학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전공만족도의 총점의 평균은 3.32±0.52점 이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위요인은 학생-교수 간 관계만족도로 3.44±0.67점이었고, 일반만족도 3.35±0.68점, 인식만족도 3.30±0.58점, 교과만족도 3.17±0.69점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과 하[15]의 학과 만족도에서 보여준 지방대 학생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서울대 학생의 경우 일반만족도와 인식만족도 그리고 학생-교수간 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나 지방대 학생들의 경우 학생-교수간의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일반만족도, 인식만족도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 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명성에 대한 개인적 만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개인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는데 지방대의 경우는 본 연구의 응답자와 같

은 경우이므로 교수 학생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과 박[1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실습이나 봉사활동에 대하여 작업치료학과의 특성을 알고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강한 양적 상관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접수 전, 접수기간 중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3.44±0.54)에 학과를 결정한 학생들이 접수 전(3.19±0.51)에 학과를 결정한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20]의 연구에서도 적성과 흥미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합격 가능성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치료학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작업치료학 전공에 대한 정보수준을 높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 자신의 발전 가능성, 사회에 봉사, 창의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과임을 인식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활적응이란 개인과 대학 생활환경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대학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개인이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에 비해 부적응은 환경과 개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겨난 것으로 개인의 마음의 조화를 허물어뜨려 고통스럽고 부적절하고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게 하여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8].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총점의 평균은 3.02±0.46점이었고, 적응정도가 가장 높은 하위요인은 사회적응으로 3.25±0.50점이었고, 대학환경적응 3.22±0.61점, 학업적응 2.82±0.48점, 개인-정서적응 2.80±0.5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29]의 연구에 의하며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환경적응, 사회적적응,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사회적적응과 대학환경 순위는 바뀌어 상이하였으나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은 일치하는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교육대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다룬 이[3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분석으로 인하여 학업적응이 가장 높게 나와 본 연구와는 상이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잘 적응 할 수 있

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두어야 하며[29], 학생들이 학교나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구와 선배들과의 많은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응과 학교 환경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학과나 대학의 행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원활한 적응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가적 차원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20,21].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총점의 평균은 3.24 ± 0.50 점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타인과의 관계 3.62 ± 0.61 점, 지도력과 인기 3.25 ± 0.55 점, 자기존중 3.01 ± 0.66 점, 자기주장 2.98 ± 0.68 점이었다.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지도력과 인기 요인만 학과선택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고등학교 재학 중 (3.32 ± 0.52)이나 대입원서 접수 전(3.32 ± 0.45)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대입 원서 접수기간(3.00 ± 0.69)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20]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하위 요인 영역별 점수가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존중, 자기주장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학과시기별로 선택에서도 적성과 흥미 위주를 고려해서 일찍 선택한 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합격 가능한 점수로 입학한 즉, 학과선택이 늦은 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 본 연구의 시기별 자아존중감과 일치하였다. 이는 적성과 흥미를 따라 고등학교 때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소신을 따른 것으로 현재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효능감과 이타성이 높아 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윤과 김의 연구[30]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아존중감에서도 자기존중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일생동안 계속적으로 발달해가는 것이지만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 또는 청년기의 주요한 심리적 발달 과제로 제시되고 있

다. 연속성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자신의 신념, 역할, 존재방식 등을 확립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한가지이다. 특히 진로발달에서 개인의 정체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진로정체감이 제시되고 있다.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정체감으로 직업에 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화된 자기개념 또는 정체감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정체감은 진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설명 할 수 있는 변인으로 분명한 진로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직업과 직업 환경을 찾아 일하고자 노력한다[24].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체감 총점의 평균은 2.94 ± 0.65 점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 3.01 ± 0.81 점, 흥미 2.52 ± 0.75 점, 재능 3.13 ± 0.74 점, 성격 3.27 ± 0.96 점이었다.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하위요인 중 성격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대입원서 접수기간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7]의 연구에서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학과에 진학한 학생은 성적 위주로 선택한 학생에 비하여 높은 진로정체감을 나타내 본 연구의 전공 선택 시기에 따른 진로 정체감과 유사하였다. 이것은 본인의 적성과 선택에 따른 높은 자기 목표를 갖게 되고 진로에 인식이 높아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손 등[4]에서도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학습만족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장래 직업에 대한 진로 방향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조[7]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이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 등[9]에서는 공과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이 대학 생활적응과 전공 학업지속 의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강과 황[6]의 연구에서는 진로 동기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등[10]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신[14]의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에서 취업에 대한 만족감이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2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전공에 대한 결정 시기가 빠를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진로 결정에 있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의 욕심이나 고등학교의 업적 위주 진로지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학과를 선택하기 이전의 학생들에게 개개인이 지닌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진학지도가 아닌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융합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과나 대학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적절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지원 체계를 개선 강화하여 효과를 증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 진학 후 학과와 대학에서는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의 많은 행사를 참여 시키고 취업에 대한 상담 지도, 취업 정보제공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14].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개 대학 재학생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직업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직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되며, 직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학과 정보습득경로, 선택 이유 등에 따른 전공만족도나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직업치료학과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본 연구 자료가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1]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 J. H.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Clusters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Resilience and the

Career Maturation of College Students", *j.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3, No. 2, pp. 39-59, 2013.
 [3] W. J. Jung, "Correlation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of Family, Career Identity and Career Belief",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0.
 [4] C.S. Son, S. G. Song, S. Y. Yoon, H. J. Kwon, Y. W. Song, K. H. Lee, R. Hwang, S. W. Kim, H. Jung, "The Survey of the Motive of Admission to Physical Therapy College, Learning Satisfaction, and Career Orientation, and its Correlation Analysis of Self Esteem", *J. KSSPT*, Vol. 9, No. 1, pp. 19-26, 2013.
 [5] H. S. Lee, J. S. Noh, J. j. Cha, S. R. Kim, S. G. Park, S. J. Sim, J. H. Lee, "The change of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through the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 Korea Society of Occupation Therapy*, Vol. 8, No. 1, pp. 107-121, 2010.
 [6]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01-3309, 2013.
 [7]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 Korea Academia Industria - 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37-2945, 2014.
 [8] J. Y. Kim, "The Relationship of Freshman's Adjustment of College Life and Depression", *J. Adolescent Welfare*, Vol. 10, No. 4, pp. 243-263, 2008.
 [9] A. K. Chung, J. S. Kim, J. H. Kim, "The Effects of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Learning Persistence", *J. Engineering Education reserch*, Vol. 16, No. 6, pp. 11-18, 2013.
 [10] J. H. Lee, H. S. Kim, H.Y. Park, D.Y. Cho, J. S. Kim, "A Research Study About Current State and

- Awareness Leve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II: Concentrate on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Confidence Level", J. Korea Society of Occupation Therapy, Vol. 20, No. 1, pp. 57-71, 2012.
- [11] Y. J.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Decision Level for University Students who Study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3.
- [12] Y. S. Lim, "A Study on Career Socialization in College Students With the Focus on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 J. Educational reserch, Vol. 8, pp. 107-129, 1993.
- [13] J. Y. Chung, Y. H. Park, "A Study on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Major with College Students in the Occupational Therapy", J. Society of Occupation Therapy the Aged and Dementia, Vol. 7, No. 2, pp. 33-38, 2013.
- [14] S. G. Shin, "Comparison of Satisfaction on Each Major Dept. of Health-Related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and Gyeongnam", J.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34, No. 2, pp. 131-140, 2011.
- [15] K. H. Kim, H. S. Kim,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 [16]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17] Baker. R. 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No. 1, pp. 179-189. 1984.
- [18] H.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19]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2.
- [20] H. K.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the satisfaction with maj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J. Young Child studies, Vol. 17, pp. 27-43, 2014.
- [21]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 1967.
- [22] J. G. Kang, "Effects of self-concept, career maturity and school achievement upon occupational status aspi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
- [23] J. E. Kim,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Educational Faith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0.
- [24] Y. R. Seo, S. H. Lee, "Comparison between self-identity and career-identit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2, pp. 525-542, 2012.
- [25] Holland, J. F., Daiger, D. C., Power, P. 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80.
- [26]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27] Y. H. Kwon, C. N. Kim,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3, No. 2, pp. 216-229, 2002.
- [28] H. Y. Park, D. Y. Cho, J. H. Lee, H. S. Kim, J. S. Kim, S. H.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the satisfaction with maj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ent State and Awareness Level of Occupational Therapy Major Students in Korea I : General Status and Reasons for Major Selection", J. Korea Society of Occupation Therapy, Vol. 19, No.

4, pp. 79-94, 2011.

- [29] S. K. Kim,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0, No. 2, 215-237, 2003.
- [30] K. H. Lee, Y. K. Jang, H. M. Ahn, "A Study on the Campus Life Adjustment and Satisfaction Index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l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26, pp. 111-245, 2000.

저자소개

정 경 아(Kyoung-A Chung) [정회원]



- 1991년 2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학과 (이학사)
- 1993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이학석사)
- 1998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직업치료학과교수
 <관심분야> : 해부학, 생리학

조 지 현(Ji-Hyun Cho) [정회원]



- 199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졸업(이학사)
- 2001년 8월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동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1998년 1월 ~ 2014년 2월 : (사)한국 사회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연구방법론 및 자료분석